하늘사랑

APRIL 2026
vol. 538

4

cover story
UFO구름
2019년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우제용



ISSN 3058-8758(Print)
ISSN 3058-8766(Online)

기상청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하게
날씨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하늘사랑

vol. 538

4

APRIL 2026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11~14층)
전화 (02)2181-0356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26년 4월 5일
발행인 이미선
편집장 민현주
편집기획 김승민, 마재준, 김지은
디자인/인쇄 사)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인쇄사업단



cover story
UFO구름
2019년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우제용

Contents



Special Theme

포커스 뉴스

02
기상청사람들_ 예보 삼총사, 기후변화 현장에 가다!

0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보이지 않는 위험을 분석하다

06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 '옙TV'의 진화

08
내 손안의 관측 노하우, 목측 가이드 앱 'Eye cloud'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l.or.kr





Weather Talk

10 봄은 누구에게나 오는 중이니까

12 봄이 깊어지는 4월, 국립세종수목원 산책

14 봄인데도 기분이 왜 이럴까

16 AI 시대, 더욱 중요해진 기상청의 인간 전문가

Theme Story

18 봄이 가장 먼저 닿는 섬, 제주의 벚꽃길 기록

20 낯선 레이더가 익숙한 일상이 되기까지,
다른 경험을 더한 신규자의 등장

22 올드 스쿠터와 함께한 시간

Report

24 Photo briefing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25 Platform

26 오늘, 당신의 날씨







기상청 사람들

예보 삼총사, 기후변화 현장에 가다!

기상청 디지털소통팀에서는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기상청)**을 운영하며, '기상청 사람들'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사람들'은 기상청 직원들의 다양한 업무뿐만 아니라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휴먼 스토리까지 소개하는 콘텐츠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의 먹거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재배되던 작물이 다른 지역에서도 재배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해왔지만, 실제 현장은 어떤 모습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에 예보관들과 함께 기후변화 현장을 찾았는데요. 날씨를 가장 가까이에서 다루는 예보관들이 현장을 마주했을 때 어떤 시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전하는지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이번 여정에는 기상청 총괄예보관실 4과 소속으로, 현업 근무 중인 예보관 세 명이 '예보 삼총사'로 함께했습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광주시의 한 감귤농장입니다. 제주도가 아닌 경기 지역에서 감귤이 재배되고 있다는 점은 기후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보관이 된 이유, 들어봤습니다

촬영 당일, 세 예보관은 전날 야간 근무를 마친 뒤 맞이한 공식 비번 날이었습니다. 피곤할 법도 한데 세 분 모두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차가 출발하자마자 예보관다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해가 여기 있으니까 동쪽이네요."
"지금 올림픽대로 타고 동쪽 방향 맞네요."

보통은 내비게이션을 확인하지만, 예보관들은 해의 위치로 방향을 판단했습니다. 촬영을 진행하며 '역시 예보관답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이동 중에는 예보관이 된 계기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김환빈 주무관은 군 복무 시절 장래 희망란에 '예보관'이라고 적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걸어 다니는 기상청"이라는 별명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문찬혁 사무관은 학창 시절 지구과학 시험에서 '오호츠크해 기단'을 잘못 적었던 일을 계기로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이는 현재의 진로로 이어졌습니다. 이상진 주무관은 어릴 때부터 지구과학에 흥미를 느끼며 자연스럽게 예보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제주가 아닌데... 감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날 찾은 곳은 경기도 광주시의 한 감귤농장입니다. 제주도가 아닌 경기 지역에서 감귤이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 신기했는데요. 차에서 내리자 예보 삼총사 역시 주변을 둘러보며 놀라움을 보였습니다. 농장에 들어서자 사장님께서 웰컴드링크로 감귤주스를 건네주셨습니다. 갓 짜낸 주스에 대한 예보관들의 반응도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왜 이렇게 달죠?"

이어진 감탄에 사장님은 그 맛의 비결로 '일교차'를 꼽았습니다. 제주보다 일교차가 커 감귤의 당도가 더 높게 형성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감귤 농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제안으로 시작했지만, 초기에는 팔당댐 인근 지역에서 귤 재배가 가능할지 확신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현재는 감귤 농사를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농사를 지으며 기후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기후가 점차 달라지고 있음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느낀 '날씨 예보'의 중요성

이후 감귤 수확 체험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운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 예보관의 표정은 점차 진지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예보관이 아닌 농부에 가까워진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농장 사장님은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햇빛을 꼽았습니다. 다른 기상 요소는 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지만, 맑은 날은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우며, 일조량이 충분할수록 작물의 생육 상태가 좋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예보관들도 이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씨가 실제 생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험을 마친 뒤에는 기상청에서 만든 '날씨알리미' 앱을 농장 사장님께 소개했습니다. 날씨알리미는 현재 날씨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몇 시간 이후의 기상 변화와 위험기상 정보까지 알림 서비스로 제공합니다.(사장님도 매우 만족했다는 후문입니다😊)

촬영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도 예보관들은 자연스럽게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작진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보관에게 날씨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이미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요. 이번 촬영에 함께해 주신 농장 사장님과 '예보 삼총사'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상청 사람들'을 포함한 기상청의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QR코드로 접속해 주세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보이지 않는 위험을 분석하다

염 지 혜 지진화산국



보이지 않지만 국민 안전에 위험이 되는 지진, 지진해일, 화산에 대해 기상청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연구과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재난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재난이 있다. 이웃 나라에서는 대규모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지진해일이 발생해 집, 차량이 순식간에 휩쓸려 가기도 한다. 화산이 분화하면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어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기도 한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발생 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될 수 있다.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연구과는 이러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부터 조기경보, 영향분석, 예측기술 개발까지 전 주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날씨처럼 국민이 매일 체감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위험을 더 빨리 감지하고 더 정확히 알려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오늘도 조용하지만 분주하게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기상청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연구과 직원들과 함께

시작은 관측자료부터

먼저, 우리나라 전역에 깔려 있는 관측장비로부터 신뢰도 있는 자료를 선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기계학습모델을 활용해 장비 이상이나 잡음을 조기에 판별하는 품질 이상 판단기술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 업무 현장에 적용되면, 관측기관 간 자료 공동활용이 확대되고 분석 정확도와 대응 속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 확보는 정확한 재난 통보와 대응 연구를 위한 출발점이다.

멀리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

2025년 3월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 지진은 1,000km 이상 떨어진 태국 방콕까지 영향을 주어, 공사 중인 고층 건물이 붕괴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건물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주기가 지진동과 유사할수록 공진이 발생해 흔들림이 크게 증폭될 수 있고, 멀리서 발생한 지진동인 장주기 지진동의 영향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외 대규모 지진의 장주기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우리 부서는 장주기 지진동 예측모델을 개발해 고층 건물 내에서의 체감 진동을 분석하고, 건물 유형별 진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조기경보와 한반도 지하단층 분석

지진조기경보 분야에서는 경보 시간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초소형 가속도계(MEMS)를 활용해, 기존 관측망과 결합한 고밀도 관측체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지하단층과 속도구조 통합모델을 구축해 지진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연구를 통해 관측 공백 지역에서도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는 향후 지진 영향 분석과 위험도 평가의 정밀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진해일과 화산 예측

지진해일과 화산 분야에서도 감시와 예측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지진해일에 대해서는 RTK-GPS(Real Time Kinematic, 실시간 이동측위)와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을 통해 연안과 원해를 아우르는 지진해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고해상도 예측모델과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상세한 피해 예측 정보를 생산할 계획이다. 화산 분야에서는 위성영상과 현지 관측자료를 결합해 백두산과 한라산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다중모델 앙상블을 활용한 화산재 확산 예측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국외 화산 분화나 지진해일 발생 시, 국내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연구 성과 교류

재난 대응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국제 공동분석, 학술 교류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작년에 주최한 국제 지진워크숍과 올해 9월 진행될 경주지진 10주기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연구 발전을 되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연구 성과 교류를 위한 지진워크숍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토의

국민 안심 재난 대응 기반 마련

지진과 화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비는 눈에 보이게 축적된다. 관측자료 한 건, 알고리즘 하나, 분석모델 한 단계의 개선이 결국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진화산연구과는 '발생 이후 대응'에서 '발생 전 대비'로, 그리고 '단순 통보'에서 '정밀한 위험정보 제공'으로 재난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위험을 더 빠르게 감지하고 더 정확히 예측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 대응 기반을 차근차근 성실히 만들어 나가겠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날씨'를 논하다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 '옙tv'의 진화

노 유 진 예보총괄관리관(재해기상대응과)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되는 순간은 어쩌면 달력의 숫자보다 코끝에서 느끼는 공기의 느낌일지 모른다. 4월, 봄바람의 온기에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비가 잦은 날에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기도 한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온도와 습도는 사실 단순히 우산을 챙길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호르몬을 변화시키고 운동 효율을 결정하며, 때로는 마음의 건강까지 좌우한다. 이처럼 날씨는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존과 안녕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다.

과학으로 이해하는 날씨

비가 오기 전 무릎이 쑤신다거나, 흐린 날에 유난히 몸이 처지는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다.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잠들기 어려워지고, 습도가 높아지면 같은 운동을 해도 훨씬 지치게 된다. "왜 오늘은 이렇게 피곤하지?"라는 질문의 답이, 사실은 날씨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비 오는 날엔 왜 기분이 가라앉을까요?"

"러닝하기 좋은 온도와 습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의 일상을 기상과학으로 접근해 보자!"

예보관에게 날씨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숫자로 바꾸고 매우 복잡한 방정식을 이용해 풀어낸 결과물이다. 맑음, 구름많음, 흐림, 강수량, 강수형태, 강수확률, 비, 눈, 풍향, 풍속 등등…. 이 결과물은 단순히 내일의 일정만 좌우하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몸 상태와 생활 리듬을 조절하는 건강 안내서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하는 날씨 이야기

기상청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 채널 '옙TV'는 2026년, 날씨와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다루기 위해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특집은 예보관이 날씨의 흐름을 설명함과 동시에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본인의 전문적인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 날씨의 비밀을 파헤쳐 보는 것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가장 극단적인 날씨를 보이는 곳은 어디일까? 역대급 폭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구름은 왜 하늘에 떠 있을까?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날씨는? 등과 같이 날씨와 관련된 다양한 상식을 과학 커뮤니케이터에게 물어보고 답한다. 내 머리 위에서 일어나는 대기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에 중심을 두었던 예보 콘텐츠가 다양한 시각과 시점으로 날씨를 바라보는 콘텐츠로 확장되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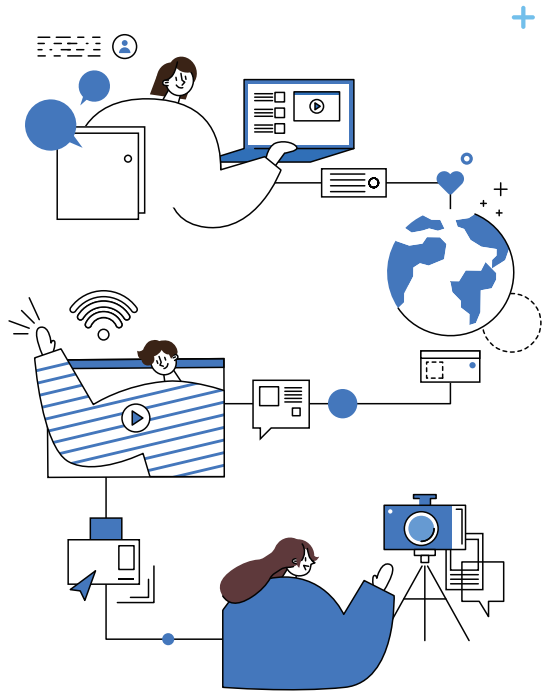
예보관의 진심이 담긴 채널 '옙TV'의 진화

'옙TV'는 '예보TV'를 빠르게 발음했을 때의 경쾌한 어감에서 이름을 딴 것으로, 2021년 6월 탄생했다.
'옙'이라는 이름 안에는 국민의 날씨 궁금증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응답하겠다는 기상청의 의지가 담겨 있기도 하다.
맑은 날에도 궂은 날에도, 365일 언제나 예보관이 직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일기도를 그리고 기압계를 설명하면서 예보의 원인과 결과, 기상 메커니즘을 알리며 국민과 소통해 왔다.

이번 특집은 옙TV가 예보 전문 채널로의 입지를 다짐과 동시에, 그동안 명절맞이 '날씨 상담소',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위험기상 상황에서 '집중 분석 시리즈'나 '24시간 라이브 방송' 등으로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을 넘어, 날씨와 연결된 다양한 정보를 담아 언제나 국민 곁에서 더 쉽고 유익한 채널로 다가가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신호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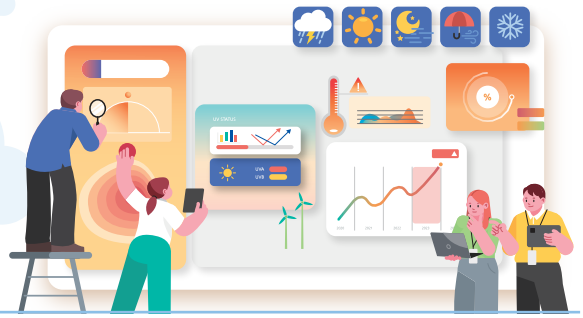


옙TV와 과학 커뮤니케이터와의 만남! 날씨 소통의 범위를 예보 분석을 넘어 우주와 과학 전반의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날씨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통한 국민과의 호흡이 시작된다.

옙TV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옙TV를 검색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으로 재미있는 예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내 손안의 관측 노하우, 목측 가이드 앱 'Eye cloud'

윤홍주 청주기상지청



우리는 날씨를 몸으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상청에서의 '기상관측'은 보다 세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중요성 역시 매우 큽니다. 기상청에서 기상현상을 관측하는 방법 중 하늘을 눈으로 직접 보며 기상현상을 관측하는 '목측'은 관측의 기본이자 가장 정교함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막막함으로 가득했던 초보 관측관에서 2025년 관측업무개선발표회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로 거듭나기까지, 우리 손안의 똑똑한 목측 가이드 앱 'Eye cloud'가 불러온 기상관측 분야의 따뜻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소개합니다.

구름 속의 길잡이, 'Eye cloud'의 탄생

우리나라 어딘가에는 넓은 하늘을 살펴보며 하늘의 기분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상청의 관측관들입니다. 하늘이 표현하는 현재의 기분, 즉 기상현상은 관측관들의 눈과 손을 거쳐 기록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정보는 대외 제공과 전 세계 공유는 물론, 날씨의 역사를 담는 공식 기록지인 '일기상통계표'에 남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종류가 매우 많은 기상현상 특성상 풋내기 관측관들은 무엇부터 어떻게 관측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도 이런 고충을 겪어 보았기에 초보자를 위한 관측 가이드 도구를 개발하여 널리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를 배경으로 'Eye cloud'라는 실무형 가이드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Eye cloud'라는 이름에는 눈(Eye)으로 구름(Cloud)을 관찰한다는 것과 동시에 데이터의 클라우드(Cloud)로 연결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내 손안의 관측자, 주요 기능 들여다보기

'Eye cloud'의 가장 큰 특징은 신규 관측관의 눈높이에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기상청에서는 단순히 기상현상 유무만 확인하지 않고, 현상의 시종 시각, 강도 등 세부 사항까지 일기처럼 기록합니다. 때문에 다양한 관측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도 흠이 없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 갈증을 해소해 준 것이 바로 이 앱입니다. 버튼 클릭 몇 번과 흐름도를 통해 구름과 기상현상을 관측하여 정리하고, 햇무리처럼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광학 현상까지 수록하여 꼼꼼한 기상관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측 가이드 앱 'Eye cloud' 화면





2025년 관측업무개선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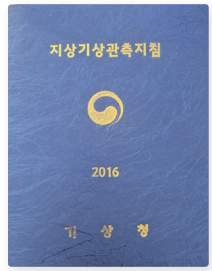


관측업무개선발표회 최우수상 수상, 그 이상의 가치

지난해, 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기상청에서 매해 실시하는 '관측업무개선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 상은 단순히 앱 개발에 대한 보상,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관측 업무를 시작했을 때 겪었던 어려움들을 후배 관측관들이 겪지 않도록, 관측 업무에 '혁신'을 더하고 불편을 해소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께 조금 더 정확한 기상 실황을 제공하고 기상 기록지의 신뢰성을 증대해, 우리나라가 기상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다는 중요한 가치 또한 내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상현상을 쉽게 캐내는 곡괭이

'Eye cloud'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신규 관측자가 다수 배치된 곳에서 그 효과가 빛을 발했습니다. 과거에는 기상현상 발생 시 팔뚝같이 두꺼운 지침서를 일일이 훑어보며 기상현상을 찾고, 맞는지 검증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훨씬 가벼워진 곡괭이인 'Eye cloud' 하나로 넓은 하늘에 박힌 기상현상을 섬세하고 쉽게 캐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 관측관 동료들이 'Eye cloud'를 '든든한 조력자'라고 평가할 때마다, 기상관측이 나날이 정확해지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 보람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지상기상관측지침서

더 정확한 예보, 그 뿌리는 올바른 관측으로부터

기상관측을 식물에 비유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지탱하는 '뿌리'와 같습니다. 식물이 탐스럽고 맛있는 열매를 맺으려면, 그 기초가 되는 뿌리부터 튼튼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기상관측이 잘못되면 부정확한 예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Eye cloud'를 통해 기상청의 관측 데이터가 더욱 정교해지고 이것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기상 서비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 전국의 관측관들이 손안의 든든한 가이드를 통하여 정확한 예보 생산에 기여하는 기상청의 든든한 '농부'가 되기를 꿈꿉니다.



목측 관측



햇무리 관측

봄은 누구에게나 오는 중이니까



박재용 작가





엘리어트는 4월이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기 때문에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작 꽃이 활짝 핀 나무가 아니라 아직 피기 전의 나무를 봅니다. 4월의 나무는 항상 꽃이 피어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나무가 훨씬 더 많죠. 우린 다른 나무는 사실 아직 다 피지도 않았다는 걸 자주 잊습니다. 활짝 핀 순간만 기억하고 사진을 찍다 보면 이제 겨우 꽃순을 올리는 나무, 아직 봉오리로 서 있던 나무는 기억에서 지워지죠.

요즘 지친 이들이 많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꽉 채우고, 잠들기 전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 불안을 안고 살면서도, 돌아보면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만 같습니다. 노력은 분명히 쌓이고 있는데 결과는 보이지 않고, 주변은 어느새 저만치 앞서가고, 슬며시 드는 생각 —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인가. 나만 제자리를 맴도는 건 아닐까.

같이 시작했던 동기가 먼저 좋은 결과를 냈다는 소식을 들을 때, SNS를 켰다가 누군가의 빛나는 순간과 마주쳤을 때, 가족이나 친구가 아무 악의 없이 건넨 “요즘 어때?”라는 질문이 괜히 무겁게 느껴질 때. 그 순간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맞는지조차 흔들립니다. 노력이 의심받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나를 스스로 의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거의 60번의 봄을 맞으며 나는 어떻게 준비했냐는 책망이 먼저 들곤 하지요. 그 마음이 틀리진 않습니다. 조급한 건 간절하다는 뜻이고, 지쳐 있다는 건 오래 달려왔다는 뜻이니까. 지치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힘을 다해 뛰지 않은 사람이죠. 당신이 지쳐 있다는 건, 그만큼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당신의 마음에서는 과정은 결과가 나온 뒤에야 비로소 드라마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리고 당신은 4월의 나무에 왜 아직 다 안 피었냐고 묻지 않습니다. 게을러서 의지가 부족해 봉오리 상태인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나무는 나무의 시간이 있고, 봉오리는 봉오리가 벌어지는 온도가 따로 있습니다. 너무 이르면 피지 않고, 억지로 당기면 꺾입니다. 그냥 지금이 그 나무의 4월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지금 당신도, 봄의 한가운데 선 나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봉오리에는 이미 피어날 봄이 들어 있습니다. 나무는 아직 꽃을 펼치지 못하고 있지만, 나뭇잎은 봄 햇살을 즐기며 광합성을 하고, 물관에선 봄의 물을 길어 올립니다. 당신의 뿌리는 봄의 흙 안에서 숨을 쉬고 있죠. 이 모두가 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4월의 나무는, 그 덜 된 얼굴 그대로도 충분히 봄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어트가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한 이유는 다르지만, 다들 봄의 한가운데 활짝 피어있는데 홀로 봉오리져 있는 당신에겐 4월이 잔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피지 않은 꽃처럼, 4월은 아직 덜 된 것들이 그래도 괜찮다고, 세상이 먼저 증명해 보이는 달이기도 합니다. 아직 피지 않은 나무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도 우리는 봄이라고 부릅니다. 완성되지 않아도 계절은 옵니다. 재촉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즐기라고 옵니다. 봄을 즐기기 위한 자격은 이제껏 버텨온 것, 이제껏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는 무언가가 익어가고,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조용히. 나중에 꽃이 피었을 때 사람들은 꽃만 볼 테지만, 그 꽃을 떠받치고 있는 건 결국 지금의 이 시간이죠.

완성된 봄을 본 적이 있는가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봄은 항상 이미 와있고, 또 오는 중이니까요. 나의 봄도, 당신의 봄도 그러합니다.







봄이 깊어지는 4월, 국립세종수목원 산책

박은하 여행작가

4월은 날씨의 변화가 많습니다. 봄비가 한 차례 지나가면 벚꽃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뒤로는 맑은 하늘이 이어집니다. 낮 기온은 20도 가까이 오르지만 아침저녁 공기에는 아직 서늘한 기운이 남아 있죠. 간혹 황사나 꽃가루 소식이 들려오기도 해 완연한 봄이 왔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렇게 겨울과 봄의 경계가 완전히 넘어가는 시기에는 여행지를 고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꽃은 조금씩 지기 시작했고, 여름 숲의 짙은 녹음은 아직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화려한 풍경보다 계절의 변화를 천천히 느낄 수 있는 숲이나 정원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종시 연기면 수목원로에 자리한 국립세종수목원은 4월 여행지로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2020년 문을 연 국립세종수목원은 축구장 90개 규모에 달하는 넓은 공간에 조성된 대형 수목원입니다. 국내 최초의 도심형 국립수목원이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도심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일상 속에서도 자연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다양한 주제 정원과 전시 온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 사계절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저는 개장 첫해부터 이곳을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아직 긴 세월을 가진 숲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묘목처럼 보이던 나무들이 이제는 가지를 넓게 펼치고 조금씩 숲의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정원도 해마다 풍성해지며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이 성장하는 과정을 한 공간에서 계속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이 이곳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가는 모습을 보며 이 수목원도, 방문하는 사람들의 기억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크게 야외 전시원과 사계절 전시 온실로 나뉩니다. 야외 공간에는 한국전통정원, 분재원, 습지생태원, 사계절 정원 등 약 20개의 주제 정원이 펼쳐집니다.



특히 4월의 야외 정원은 막 돋아난 연둣빛 잎과 봄꽃이 어우러져 가장 생기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봄비가 한 차례 지나간 뒤 산책로를 걸으면 젖은 흙냄새와 어린잎의 향기가 은은하게 공기 속에 섞입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도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의 중심은 단연 사계절 전시 온실입니다. 축구장 1.5배 규모인 약 1헥타르 크기로 지어진 이 온실은 붓꽃을 형상화한 독특한 외관 덕분에 멀리서도 쉽게 눈에 띕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달라지며 마치 다른 기후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온실은 지중해, 열대, 특별 전시 공간으로 나뉘는데요. 공간마다 기후 조건이 달라 각기 다른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식물 세상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듭니다.





지중해 온실에서는 올리브나무와 라벤더 향기가 상쾌하게 퍼지고,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정원의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열대 온실에서는 커다란 잎을 가진 식물과 화려한 꽃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습한 공기 속에서 식물들이 숨 쉬는 기운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특별 전시 온실은 계절마다 새로운 주제로 꾸며져 방문할 때마다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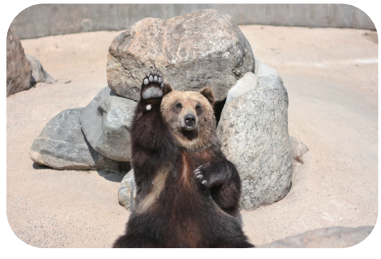
수목원을 나서기 전, 입구에 있는 식물 판매장에 들러보는 것도 작은 즐거움입니다. 온실에서 보았던 식물의 작은 화분이나 집에서 키우기 쉬운 품종을 만날 수 있는데요. 식물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으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실제로 몇 번 작은 화분을 구입해 집에 두었는데, 창가에서 자라는 식물을 볼 때마다 수목원에서 보낸 시간이 함께 떠오르곤 해요.

봄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 4월의 날씨는 매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봄비가 지나간 뒤 공기가 맑아지고, 나뭇잎은 하루 사이에도 더 짙어집니다. 계절이 변화하는 속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봄날에는 국립세종수목원처럼 천천히 거닐며 자연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를 추천해요.

Tip

시간 여유가 있다면 세종시 전동면에 자리한 베어트리파크도 함께 들러보세요. 10만여 평 규모의 숲 정원에서 곰을 만나 볼 수 있는 곰 동산과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습니다. 4월에는 연둣빛 숲과 봄꽃이 어우러져 가족 나들이 장소로 특히 좋습니다.





봄인데도 기분이 왜 이럴까

오현주 작가



'April is the cruellest month.'[1] Thomas Stearns Eliot의 장시 『The Waste Land』의 첫 구절이다. 우리에게는 '잔인한 4월'로 번역되어 잘 알려져 있다. 봄은 원래 달콤한 계절이어야 한다는 기대가 큰 만큼, 그 기대가 어긋날 때가 있다. Geoffrey Chaucer가 4월을 '달콤한 소나기'로 노래했다면[2], Eliot은 봄의 재생이 오히려 고통을 깨우는 순간을 잔인함으로 뒤집어 보여준 셈이라는 해석이 있다.[3]

4월의 아침, 창밖은 분명 봄인데, 휴대폰에서는 '미세먼지 경보'가 연신 울려 댄다. 마스크를 챙기고, 아침 운동 계획을 취소한다. 꽃은 피기 시작하고, 햇살도 따뜻한데, 공기는 맑지 않다. 이런 날에는 이상하게 하루가 가벼운 봄의 리듬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눈이 뻑뻑하고 목이 칼칼해지면, 집중은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하고 말투는 쉽게 날카로워진다.

대기오염은 흔히 호흡기 건강의 이슈로 알려져 있지만, 이미 많은 연구들이 공기질을 정신건강과 분리된 주제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4] 장기간 초미세먼지(PM2.5) 노출과 우울 및 불안 지표의 연관성을 보고한 연구들은 꾸준히 축적되어 왔고[5], 여러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에서도 오염된 공기가 우리의 기분과 감정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한 기분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6]

중요한 메시지는, 공기질이 나쁜 날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힘든 게 아니라 몸이 비용을 내고 있어서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호흡이 미세하게 불편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며, "오늘은 괜히 컨디션이 별로네"라는 평가가 시작되기 쉽다. 이러한 생각이 쌓이면, 작은 실수도 크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한마디도 유난히 거슬린다. 이렇게 대기의 질은 우리의 마음이 버틸 수 있는 '여유'를 조금씩 깎아 먹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가 많다.

1) Eliot, T. S. (1922). *The waste land.* Boni and Liveright.

2) Chaucer, G. (2008). *The Canterbury Tales* (D. Wright, Trans). Oxford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c. 1387–1400)

3) The Poetry Foundation. (2003). *T. S. Eliot: The waste land.*

4) Radua, J., De Prisco, M., Oliva, V., Fico, G., Vieta, E., & Fusar-Poli, P. (2024). Impact of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on mental health outcomes: an umbrella review of global evidence. *World Psychiatry, 23*(2), 244–256.

5) Power, M. C., Kioumourtzoglou, M. A., Hart, J. E., Okereke, O. I., Laden, F., & Weisskopf, M. G. (2015). The relation between past exposure to fine particulate air pollution and prevalent anxiety: Observational cohort study. *BMJ,* 350.

6) King, J. D., Zhang, S., & Cohen, A. (2022). Air pollution and mental health: Associations, mechanisms and methods.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35*(3), 192–199.



4월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자극이 있다. 바로 꽃가루다. 알레르기 비염이 시작되면 코막힘과 재채기가 생활을 방해하고, 특히 밤에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알레르기 비염의 코막힘이 수면을 방해하고, 낮 시간의 학습, 업무, 집중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보고되어 왔다.[7] 잠을 얕게 자고 나면 낮에는 멍함과 졸림, 그리고 짜증이 남는다. 여러 연구를 종합한 메타분석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이 불안과 우울 위험 증가와 관련될 수 있다고 보고한다.[8] 물론 이러한 결과가 비염이 곧 우울증을 만든다는 단순 인과를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4월 초처럼 증상이 도드라지는 시기에는 몸의 불편이 수면과 피로를 거쳐 감정조절 능력을 흔들고, 그 결과 우리 마음이 더 쉽게 지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봄철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공기질이 나쁜 날에는 "오늘도 똑같이 해내야 한다"는 기준을 잠깐 내려놓는 것이 첫 번째이다. 소모가 큰 선택을 줄이는 편이 낫다는 뜻이다. 중요한 결정, 밀도 높은 스케줄, 감정노동이 큰 만남처럼 에너지 소비가 큰 일을 같은 날에 몰아넣기보다, 가능하면 컨디션이 안정적인 날이나 시간대로 조율하는 것이 좋다. 꼭 해야 한다면, 결과의 완성도보다 과정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편이 낫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한 번에 끝내기' 대신 '짧게 나눠 하기'로 설계를 바꾸면, 마음이 흔들릴 틈도 줄어든다.

꽃가루가 심한 날에는 수면이 방어선이 된다. 코막힘이 있는 밤을 "어차피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넘기면, 다음 날의 컨디션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 집중은 쉽게 흩어지고, 감정은 더 빠르게 마찰을 낸다.[9] 그래서 생활 습관에서 작은 조율이 필요하다. 저녁 시간의 생활 리듬을 조금 앞당기거나, 잠자리에 들어가는 순간의 호흡 부담을 줄여보는 등의 작은 조정은 완벽한 관리가 아니라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를 하나씩 걷어내는 방식에 가깝다.

봄은 대개 '가볍고 새로운 시작'으로 기억되지만,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같은 보이지 않는 입자들은 눈에 띄지 않게 몸에 스며들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리듬에 영향을 미친다. 봄이 보내는 신호에 맞춰 하루의 속도를 조절하고, 회복을 위한 여유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4월의 탄생석은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라고 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천연광물로 알려진 다이아몬드는 빛이 드나들 수 있는 다듬어진 면에서 빛을 낸다. 무리하게 힘을 들이기보다,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남겨두면 어떨까.



7) Liu, J., Zhang, X., Zhao, Y., & Wang, Y. (2020). The association between allergic rhinitis and sleep: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observational studies. *PLoS One, 15*(2), e0228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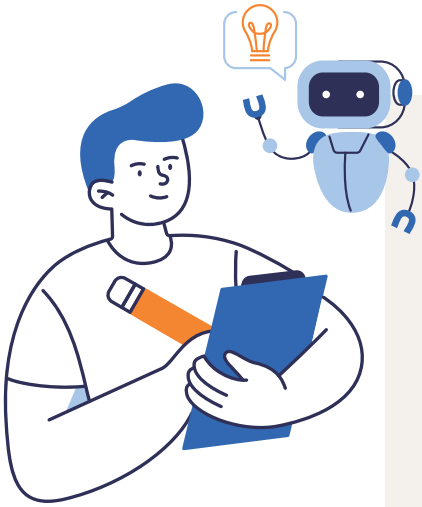
8) Rodrigues, J., Franco-Pego, F., Sousa-Pinto, B., Bousquet, J., Raemdonck, K., & Vaz, R. (2021). Anxiety and depression risk in patients with allergic rhiniti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Rhinology, 59*(4), 360-373.

9) Goldstein, A. N., & Walker, M. P. (2014). The role of sleep in emotional brain function.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0*(1), 679-708.

AI 시대, 더욱 중요해진 **기상청의 인간 전문가**



이 병 구 동아사이언스 기자



"AI가 기존 예보 모델을 모두 제치고 허리케인 경로를 가장 정확히 예측했다."

기상 분야를 포함해서 인공지능(AI)으로 단편적인 성과를 낸 과학 연구를 소개하고 나면 "이제 AI가 모든 인간 직업을 대체할 것이다"와 같은 다소 무기력한 기사 댓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과학계를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현재 AI의 한계가 명확하며, 오히려 AI를 능숙하게 이용하고 가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인간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결론에 무게가 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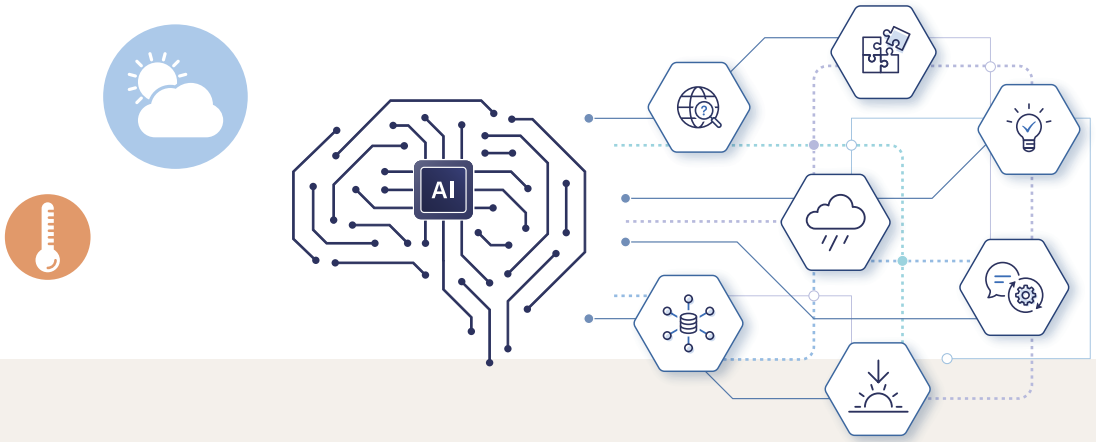
AI, 인간 없이 강해질 수 없다

AI의 강력함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연관성과 패턴을 추론하는 데서 나온다. 반대로 데이터가 부족하면 성능을 제대로 내기 어렵다.

미국 엔비디아와 캘리포니아공대(칼텍)이 개발한 포캐스트넷(FourCastNet), 구글의 그래프캐스트(GraphCast), 중국 화웨이 클라우드의 판구웨더(Pangu-Weather) 등 수년 내에 등장한 고성능 AI 기상예보 모델들도 결국 인간이 오랜 시간 쌓아 온 기상 데이터 위에 세워졌다.

새로운 '인간 데이터' 없이 AI만으로 한계를 돌파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2024년 7월 야린 갈 영국 옥스퍼드대 컴퓨터과학과 교수팀은 AI가 만든 데이터로 학습을 반복한 AI 모델에서 '붕괴'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공개했다. 이때 붕괴는 결과물이 오염돼 가치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인간이 생성한 데이터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이를 활용한 AI 모델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류가 지금껏 겪어본 적 없는 기후위기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과거 데이터만으로는 유추하기 어려운 극한 기상이 발생하고 있다. 역시 AI가 한계를 보이는 지점이다.



2025년 미국 시카고대 연구팀은 AI가 학습 데이터에서 크게 벗어난 '규격 외' 기상 현상을 예측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했다.

허리케인은 평균 풍속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뉜다. 3등급~5등급 허리케인 데이터를 제외하고 학습한 AI 기상예보 모델은 가장 강력한 5등급 허리케인을 예측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것이다. 시카고대 연구팀은 "AI 모델이 극한 기상에 대해 믿을 만한 조기 경보나 추정을 제공하려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간 전문가에 날개 달아주는 AI

AI 연구는 크게 AI 자체의 구조를 새로 개발하고 성능 향상에 주력하는 분야와, AI를 다른 전문 영역(도메인)과 결합하는 'AI 융합'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몇 가지 명확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AI는 다양한 전문 분야와 융합해 기존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도구로 꼽힌다. AI의 뛰어난 데이터 처리 및 추론 능력이 인간 전문가의 손에 쥐어질 때 강력한 시너지를 내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제네시스 미션'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다.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선다.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K-문샷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 데이터, AI 모델, 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AI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가 다량 축적된 기상 분야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 AI 도입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은 "AI가 예보관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수치예보모델에 AI 기술을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기상·기후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전 세계는 지난 수년간 AI의 잠재력을 믿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해 왔다. 이제 AI가 인류에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 집단인 기상청이 'AI 날개'를 달고 국민 안전을 지켜내며 기후위기를 헤쳐 나갈 모습을 기대해 본다.

봄이 가장 먼저 닿는 섬

제주의 벚꽃길 기록

강미선 국립기상과학원

꽃샘추위가 몇 번이고 고개를 들이밀어도, 봄은 결국 제 갈 길을 간다. 움츠렸던 꽃망울이 가지 끝에서 톡톡 터지고, 절정의 봄꽃은 작은 바람에도 흩날려 꽃비를 뿌린다. 제주에서도 봄은 남쪽에서 시작된다. 더 따뜻한 서귀포에서 먼저 열리고, 천천히 제주시로 번진다. 제주 벚꽃은 보통 3월 중순 이후 꽃을 틔워 4월 초에 만개한다. 봄이 가장 먼저 닿는 섬 제주에서, 그동안 직접 걸으며 마음에 담아둔 벚꽃길을 꺼내 본다.

국립기상과학원 근처 벚꽃길, 호근마을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국립기상과학원은 호근마을 벚꽃길 초입 가까이에 자리해 있다. 점심시간, 마을 길을 잠깐 걸을 뿐인데도 계절이 먼저 말을 건다. 가지 끝에 한 송이, 두 송이 핀 벚꽃을 발견하는 순간 "아, 봄이 왔구나" 하고 몸이 먼저 알아차린다.

해마다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건 세탁소 앞 벚나무다. 봉오리가 유난히 빨리 부풀고, 분홍빛도 먼저 번진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세탁소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그런가?" 하는 농담이 오가곤 한다. 잠깐의 산책만으로도 봄을 한 모금 마신 듯해지는 것, 서귀포 근무가 주는 소소한 선물이다.

위치: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한라산과 벚꽃을 함께, 용당교

과학원에서 마음을 먹고 조금만 더 걸으면 점심시간에도 다녀올 수 있는 벚꽃 포인트가 있다. 바로 용당교다. 원제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주변으로 벚꽃이 이어지고, 다리 위에 서면 벚꽃 너머로 한라산 능선이 선명하게 들어온다. 벚꽃과 한라산이 한 프레임에 담기는 구도 덕분에, 최근 SNS에서도 사진 명소로 자주 언급된다. 제주다운 봄을 한 장면으로 남기고 싶다면 가볍게 들러 봄을 기록하기에 좋은 자리다.

위치: 서귀포시 서홍동 1408-1, 용당교 일대



대왕수천이 흐르는 곳, 예례생태공원

시간이 넉넉한 주말이면 예례생태공원으로 발길이 간다. 공원에는 '대왕수'라 불리는 용천수가 흐르고, 그 물길을 따라 벚꽃이 길게 이어진다. 공원은 넓고, 산책로는 단정하며, 쉬어 갈 자리도 많다.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거나, 햇빛 아래 잠시 멈춰 서기에도 좋다. 벚꽃이 만개할 무렵에는 유채꽃과 철쭉이 곁을 채운다. 꽃이 지기 시작하면 수면 위에 꽃잎이 떠 분홍 물결을 만든다. 같은 자리인데도 시기마다 표정이 달라진다. 그래서 다시 찾게 된다.

위치: 서귀포시 상예동 5002-26



하천 따라 피는 봄, 웃물교

제주에는 한라산에서 흘러내린 물줄기 곁으로 벚꽃길이 생겨난 곳이 많다. 웃물교 일대도 그렇다. 하천을 따라 산책로가 이어지고, 양쪽으로 벚나무와 유채가 길게 늘어선다. 이곳의 매력은 '조용함'이다. 산책로가 조용한 덕분에 발걸음을 일부러 늦추게 되고, 생각도 따라 느려진다. 사람이 뜸한 저녁 무렵, 달빛을 받으며 걸으면 낮과는 전혀 다른 봄이 펼쳐진다.

위치: 서귀포시 서홍동 2097-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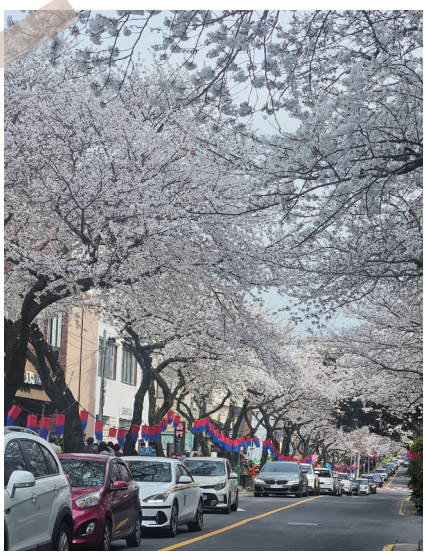
유채꽃과 벚꽃이 겹치는 길, 녹산로

주변에서 벚꽃이 지기 시작하면 마음 한편이 허전해진다. 그럴 때 녹산로로 간다. 동쪽 중산간에 있어 다른 곳보다 개화가 며칠 늦다. 봄을 '조금 더' 붙잡을 수 있는 길이다. 도로 양옆으로 유채꽃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위로 분홍빛 벚꽃이 활짝 펼쳐진다. 노란 봄과 분홍 봄이 겹치는 순간, 눈이 먼저 환해진다. 만개한 벚꽃과 유채를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 그래서 날이 맑으면, 바쁜 와중에도 틈을 내어 드라이브를 나가곤 한다.

꽃 사이로 난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봄 내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유채광장에 넓게 펼쳐진 노란 물결, 멀리 보이는 오름, 그리고 풍력발전기까지. 녹산로는 이 멋진 조합으로 제주의 봄을 완성한다.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코스다.

위치: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381, 가시리조랑말체험공원





제주 왕벚꽃 축제, 전농로 벚꽃거리

봄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고 싶을 때는 전농로로 향한다. 봄이 오면 좁은 도로가 분홍빛으로 물들고, 축제 기간에는 '제주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다'는 말이 나올 만큼 북적인다. 전농로에는 보통 3월 말 무렵 제주 왕벚꽃 축제가 열린다. 일부 구간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돼 공연과 플리마켓이 이어지고, 길 위에는 솜사탕과 풍선이 떠다닌다. 그런 풍경 속에서는 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진다. 잠깐, 동심에 기대어도 괜찮아지는 시간이다. 전농로는 잘 알려진 벚꽃길이면서도, 누군가의 추억과 그날의 봄이 함께 지나가는 공간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해마다 다시 찾게 된다.

위치: 제주 전농로 벚꽃거리



매해 같은 꽃이지만, 벚꽃길은 볼 때마다 새롭다. 낮에는 햇빛을 받아 환하고, 밤에는 가로등 아래에서 결이 달라진다. 서귀포에서 시작된 분홍빛이 제주시로 번지고, 다시 중산간에서 늦은 봄을 만나게 되는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제주가 한 섬 안에 여러 가지 봄의 표정을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벚꽃은 짧다. 하지만 그 길에서 보낸 봄의 기억은 오래 남는다.



낯선 레이더가 익숙한 일상이 되기까지,
다른 경험을 더한 신규자의 등장

차승준·조현수 기상레이더센터

시작하며 일상이 된 비구름, 관측의 시작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오려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그저 우산을 챙길지 고민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에 근무하는 지금, 비구름은 더 이상 혼잣말의 소재가 아니게 되었으며, 비구름의 이동 경로나 세기를 기상레이더가 정확히 관측하는지 살피는 것이 저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첫 출근 전, '기상레이더'라는 장비는 낯선 존재였습니다. 거대한 레이돔 안에서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정밀 장비들 사이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섰던 그간의 적응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자리에 뿌리 내리다

임용 경로는 달랐지만, 저희 둘은 비슷한 경력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민간에서 지상국 시스템과 위성개발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차승준)과, 이전에 군무원으로서 위성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조현수) 덕분에 서로 통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이전에 다루었던 위성 및 지상국과 기상레이더센터에서 만난 기상레이더는, 그 목적은 달랐지만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새롭게 배워야 할 부분도 있었지만, 그간의 경험은 새로운 환경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은 기술적 노하우를 기상레이더 운영에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하며, 저희는 점차 기상레이더센터의 일원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광덕산 기상레이더관측소



진도 기상레이더관측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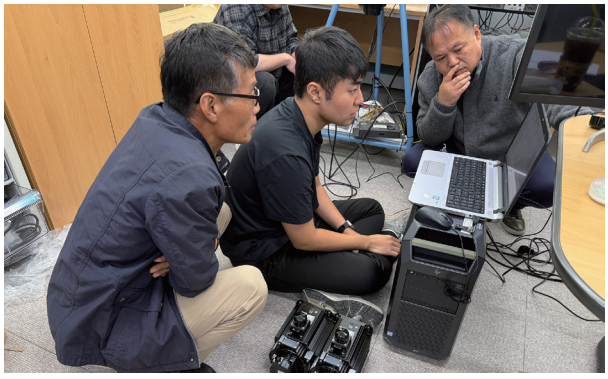
왜 기상레이더인가? 기상레이더 운영 업무의 매력

전파를 쏘아 올리는 기술 자체는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할지 모르나, 그 대상이 '강수 입자'라는 점이 기존의 기술적 경험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며 큰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높은 하늘 위에 떠 있는 빗방울과 눈송이에 맞고 돌아오는 미세한 신호를 해석하는 과정은 무척이나 흥미로웠으며, 자연의 변화를 읽어내어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업무 적응기 정적인 공간을 넘어, 살아있는 현장으로

기상레이더 운영은 매우 역동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날씨'라는 매 순간 요동치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하늘과 맞닿은 산 정상의 레이더 관측소에서, 때로는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관측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합니다. 예보를 위해선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정확한 관측자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느끼며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상레이더는 높은 기술적 이해도와 현장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선배님들의 열정적인 실무 중심 지도 덕분에 차근차근 기술을 이해하며 현장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높은 철탑에 올라 마주한 거대한 레이더가 정상적으로 회전하며 관측하는 데이터들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깨달을 때마다, 기술자로서의 보람과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나가며 전문성을 갖춘 기상레이더 전문가를 향해

이제는 단순히 장비를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 트렌드를 업무에 접목하고 부서 간 협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기술적 전문성과 행정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춘 '기상레이더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늘 깨어 있는 공무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올드 스쿠터와 함께한 시간

남호진 전주기상지청



멈춰 있던 일상에 다시 시동을 걸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은 우리 모두의 일상을 갑작스럽게 멈춰 세웠습니다. 여행과 모임, 회식처럼 당연했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집과 회사를 오가는 단조로운 반복만 남았던 시기였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 평소 즐기던 운동인 탁구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우연한 계기로 하나의 새로운 취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20년 이상 된 올드 스쿠터를 직접 리스토어(복원)하는 취미입니다.

우연에서 시작된 취미

처음부터 오토바이에 특별한 조예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에 거리에서 흔히 보였던, 작은 스쿠터들이 조용히 골목을 오가던 모습에 대한 막연한 향수가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시간이 많아진 어느 날,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오래된 50cc 스쿠터 한 대를 보게 되었고, '이걸 다시 제대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단순한 호기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손에 들어온 첫 올드 스쿠터는 생각보다 많은 손길을 필요로 했습니다. 시동은 걸리지 않았고, 외관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으며, 부품 하나하나가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이상하게도 힘들기보다 즐거웠습니다. 고장 원인을 하나씩 찾아나갔고, 멈춰 있던 기계가 다시 숨을 쉬는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마치 예보가 잘 맞는 것처럼 묘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50cc 스쿠터의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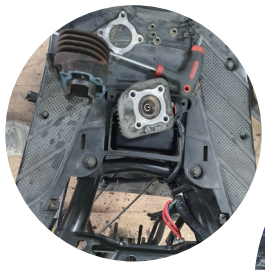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스쿠터들은 대부분 일본산 50cc 미만의 소형 스쿠터들입니다. 혼다(HONDA)와 야마하(YAMAHA) 브랜드가 중심이 되는데, 스쿠터는 자동차에 비해 부품이 소형일 뿐, 작동 원리는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또한 스쿠터에 장착된 온도, 기압, 전위차계 센서 등은 기상관측 센서(기온, 기압, 풍향)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품들과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야마하(YAMAHA) 비노50
복원 전(사진 위)과 복원 후(사진 아래)

대표적으로 야마하의 '비노50'은 둥글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모델이며, '복스50'과 '비위즈50'은 실용성과 개성이 조화를 이룬 스쿠터라 할 수 있습니다. 혼다의 '줌머50'은 투박하면서도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쿠피50'은 부드럽고 클래식한 외형 덕분에 도시 풍경과 잘 어울리고, '자이로50'은 독특한 구조와 안정성으로 혼다의 기술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스쿠터들의 공통점은 '빠름'이나 '강력함'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충분히 잘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내고 기본에 충실한 설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쉽게 퇴색되지 않습니다.



야마하(YAMAHA)
비노50 엔진 수리



스쿠터 작업 공간 및 보관 창고

리스토어의 과정, 그리고 배움

올드 스쿠터를 리스토어하는 일은 단순히 외관을 깨끗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엔진, 연료계통, 전기계통, 제동장치까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올드 스쿠터를 복원하며 자연스럽게 기계 구조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작은 변화가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두르지 않고 순서대로 접근해야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쿠터가 다시 시동을 걸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 느끼는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다가옵니다. 참고로 올드 스쿠터는 정비 과정에서 날씨의 영향을 예민하게 받는 중요 부품이 있습니다. 기화기(캬브레터)는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은 날엔 유독 반응이 더뎌져서 조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올드 스쿠터가 준 위로와 균형

팬데믹이라는 힘든 시기를 지나오며, 이 취미는 제게 단순한 여가 활동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눈앞의 기계와 도구에 집중하는 시간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20년 넘은 스쿠터를 천천히 복원하는 일은 어쩌면 시대에 역행하는 취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림 속에서 균형을 찾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경험은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작은 스쿠터들과 함께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제 취미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하늘사랑〉을 통해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고, 혹시 주변에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이 계신다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일상을 지켜온 우리 모두에게, 작은 취미 하나쯤은 분명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저에게는 올드 스쿠터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 신설 정책토론회 (3월 16일)



기상청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극단적 고온과 야간 고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폭염 특보체계의 도입 방향과 범정부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2026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 (3월 23일)



기상청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대전엑스포시민광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기상과학 전시·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세계기상기구는 기후위기 시대에 전 지구적 위험을 반영한 현안을 주제로 정해 매년 메시지를 전한다. 올해는 '오늘을 관측하여, 내일을 보호한다'라는 주제를 선정했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기후재난 대응 서비스 토론회 (3월 19일)



기상청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안호영, 김주영, 이학영,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의원 공동주최로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기후재난 대응 서비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기, 해양, 해빙, 지면을 아우르는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인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을 활용해 기후재난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다각적인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고창 표준기상관측소 전 세계 기상 기준관측망 등록 현판식 (3월 5일)



기상청은 국립기상과학원 고창 표준기상관측소의 세계기상기구 전 지구 지상기준관측망(GSRN) 관측소 현판식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지상기준관측망은 기후변화 특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한 기준 자료를 장기간 생산·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고창 표준기상관측소는 지난해 12월에 세계기상기구 전지구기후관측체계(GCOS) 지상기준관측망에 등록됐다.

Platform

기상청에 소식지 <하늘사랑> 외에도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기상청 온라인 채널과 이달의 인기 있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이달의 추천 콘텐츠 급식대가와 예보관의 만남



급식대가와 예보관이 만나 바지락칼국수를 끓인 이유는?

#비법레시피 #먹방 #제철음식 #바지락

계절에 맞는 식재료를 챙겨 먹는 '제철코어'가 트렌드인 요즘, 봄철 제철 식재료인 바지락으로 즐기는 한 끼, 어떠세요? 살이 오른 바지락을 넣어 끓인 바지락칼국수로 제철의 맛을 전하기 위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수많은 학생의 입맛을 사로잡은 급식대가 이미영 쉐프와 예보관이 달큼하고 시원한 국물이 매력적인 바지락칼국수를 선보입니다. 특히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조리 과정과 비법 레시피, 먹방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해 식탁에서 점차 보기 어려워질 수 있는 식재료 이야기까지 전합니다. 여러분은 기후변화로 달라진 먹거리를 체감하고 계신가요? 기상청 유튜브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의견도 남겨주세요~

kma
웹진
kma.go.kr/kma

〈하늘사랑〉은 기상청 행정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페이스북, X)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웹진 보기

기상청 행정 누리집(홈페이지) 〉 알림·자료 〉 기상간행물

sns
소셜미디어
(SNS)

기상청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날씨를 주제로 국민 여러분과 일상을 나누며 소통합니다. 특히, 날씨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기상·기후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예보부터 생활 속 날씨 정보 활용법과 기상과학 풀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주소 또는 QR코드를 통해 기상청 SNS 채널을 방문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구독 또는 팔로우, 콘텐츠 '좋아요'를 누르고,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 주세요~

기상청 대표 SNS 채널

- 유튜브 youtube.com/@기상청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kma_skylove
- 블로그 blog.naver.com/kma_131
- 페이스북 facebook.com/kmaskylove
- X(트위터) x.com/kma_skylove

오늘, 당신의 날씨

우리는 같은 날씨 안에서도
저마다 다른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땠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들려주세요.

박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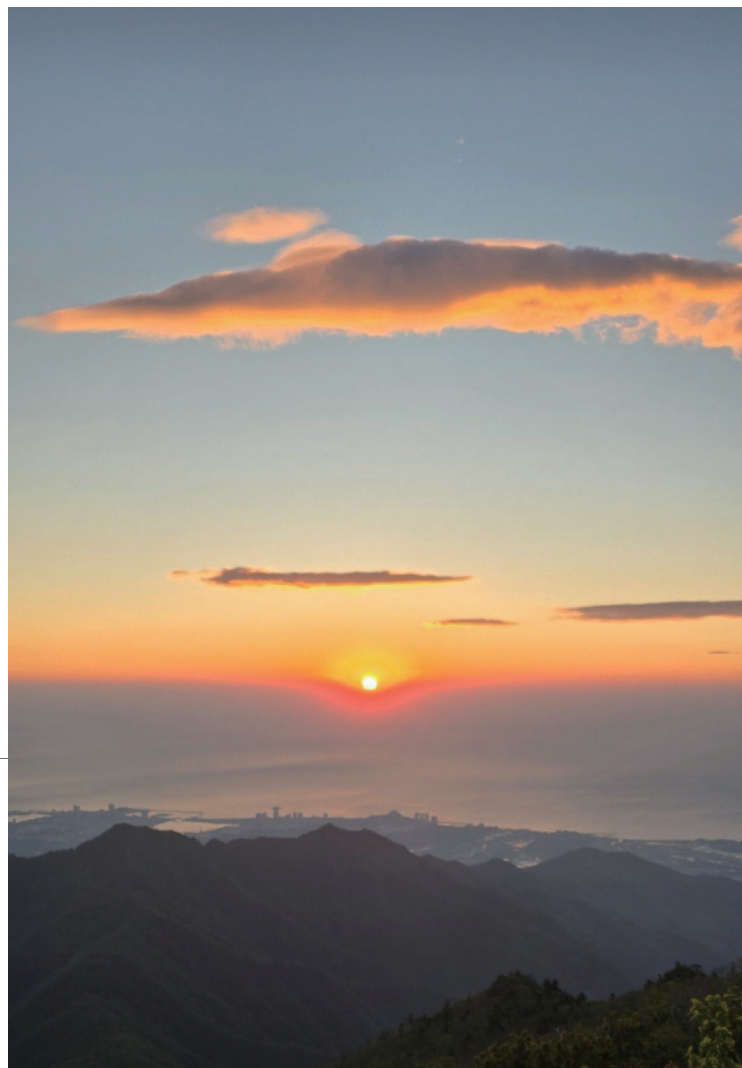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하는 매화꽃은 마치 작고 예쁜 구슬이 달린 듯 조그마한 팝콘을 연상케 하며 봄 햇살 속 매화는 영롱하고 예뻐 보이네요. 고결함과 절개를 상징하는 사군자의 하나이며 충실과 인내의 꽃말을 지니고 있답니다.





최영지

봄을 대표하는 꽃 중 하나인 목련은 나무 위에 피는 연꽃으로 불릴 정도로 고귀하고 우아한 자태로 행인들의 눈길을 끌며, 순백의 자태는 고결함의 상징이고 꽃피는 자태는 마치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모양을 보여 주면서 '사랑의 기쁨'이란 꽃말을 소유하고 있답니다.



김동석

산 능선을 따라 여명의 빛이 세상을 조용히 깨우는 순간입니다.
붉게 타오르는 해와 금빛 구름 사이에서 어제의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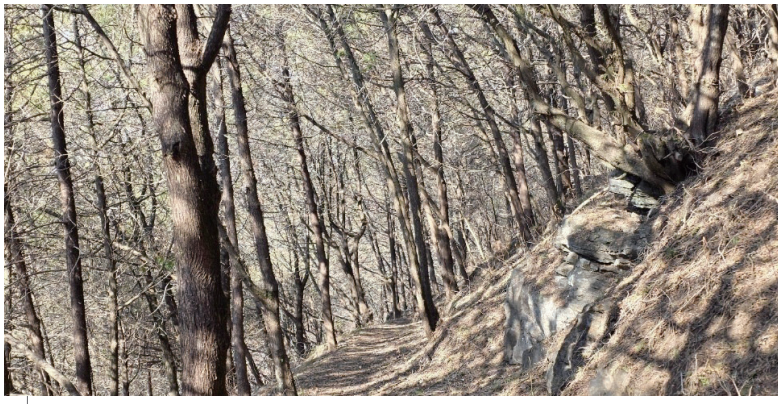
장우익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과 초승달이 함께 떠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꿈속의 한순간처럼 평화롭고, 자연의 조화로움이 느껴져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장인선

새봄을 맞이하여 동해를 다녀왔습니다. 동해 한섬 산책로에서 고불개 해변의 하얀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과 푸른 하늘이 어우러져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파도와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정말 아름다운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강현숙

내일이 아닌 지금, 균형과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식. 제천슬로시티 수산마을 측백숲을 걸으며 여유를 느꼈습니다.

참여 방법

자신의 일상이 담긴 날씨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소개 멘트(100자 이하)를 이메일(kmanews@korea.kr)로 **4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께는 온누리상품권(1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응모하실 때는 **성함·연락처·주소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기상청에서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목적): 성함, 연락처, 주소(본인 확인 및 상품권 지급)
- 보유 및 이용기간: 1년(개인정보 수집·이용 후 즉시 파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위 사항은 상품권 지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상품권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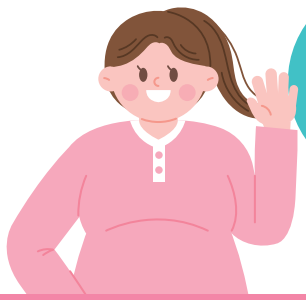
본 코너에 선정된 사진은 발표 해당호에 한해 게재되며, 저작권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저작권 규정을 어겨 응모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힘이되는 129

세 가지가 좋아진 아동수당

2026년 아동수당 변경사항 안내





하나!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 8세 미만 →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 확대**
  * ('25) 8세 → ('26) 9세 → ('27) 10세 → ('28) 11세 → ('29) 12세 → ('30) 13세 미만

둘! 거주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 **비수도권** 월10만원 + **0.5만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월10만원 + **1만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월10만원 + **2만원**

셋!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추가 지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하는 경우, **월 1만원 상당액 추가 지급**

아동수당법 개정('26. 3월)에 따라 **확대되는 부분**은 **'26. 4월 이후 지급 예정**이며, **'26. 1월분부터 소급지급 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지원이 종료된 **'17. 1월생~'18. 3월생 아동**은 **지자체에서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아동수당 신청을 유도하는 피싱 문자에 유의하세요!
(정부에서 보내는 문자는 링크나 큐알코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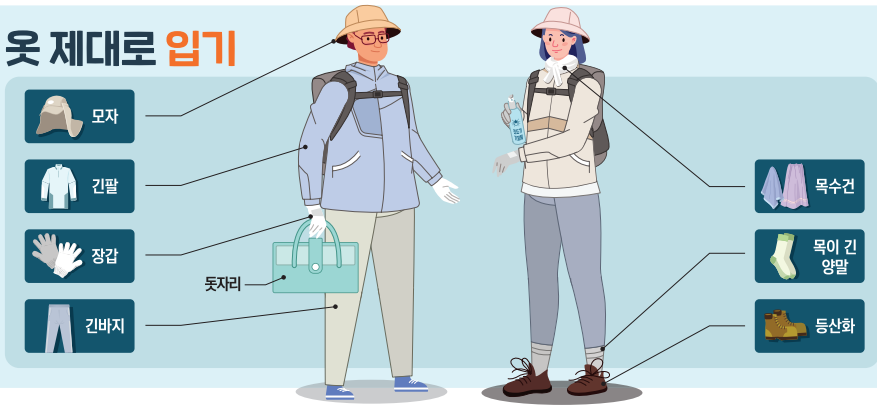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 및 관리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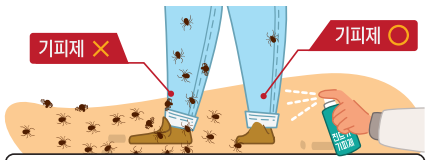
01 예방 야외활동 전

옷 제대로 입기



02 예방 야외활동 전 / 중

기피제 뿌리기



[진드기 기피제 주요 성분 및 함량]

-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7~30% 이하 : 털진드기, 참진드기
- 이카리딘 : 7% (털진드기), 15% (털진드기, 참진드기)
- IR3535 : 12.5% (털진드기), 14% (털진드기, 참진드기)

*쯔쯔가무시증(털진드기), SFTS(참진드기)

진드기 옷에 보조적으로 살포 — 지속시간 4시간

※ 성분함량, 효과 지속시간이 다르므로 제품별 사용법 확인후 사용권고

보조도구 사용하기



돗자리/깔개 등

03 예방 야외활동 직후

털고, 씻고, 빨래하고



털고

에어건으로 진드기 털기



씻고

전신 샤워 및 진드기 찾기



빨래하고

야외복 세탁하기

01 관리 야외활동 후 2주 동안

증상 살피기



고열/오한



두통



근육통



오심/구토/설사

물린 흔적 찾기



검은 딱지



물린 자국

질병관리청

봄철 산불조심기간 | 1.20~5.15

산불은 막을 수 있는 재난입니다!



산림 내에서
라이터, 담배 소지 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입산 금지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 금지

산불신고

산림청 산불상황실
042-481-4119

소방서 119 | 경찰서 112

"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산림보호법」 제 53조

산림청